
5분 자유발언

- 고성군 도심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 -



고성군의회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고성군이 더 큰 발전과 화합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우리 고성군의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스포츠마케팅과 공룡세계엑스포와 같은

대형 이벤트를 통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시내를 중심으로
이른 저녁부터 불이 꺼진 상점들과
빈 점포들이 늘어가면서,
정작 우리 지역의 도심 밤거리는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상권의 위축으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저녁 외출을 꺼리게 되고,

상인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찍 가게 불을 끄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명 설치와 같은 단기적 개선을 넘어,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외 밤거리의 활기를
더하기 위해 야간 시장이나
문화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주민들이 야간에도 외출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상인들이 가게를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둘째, 빈 점포를 활용해
지역 창업자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나 창업 지원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빈 점포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으로
고성에서의 정착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밝고 안전한 야간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
스마트 조명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조명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밝기를 낮추고,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조도를 높여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점 간판 조명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간판이 일찍 꺼지면 거리는
더욱 음산하게 느껴집니다.

상인들이 부담 없이
간판 불을 늦게까지 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일정 부분 비용을 보조해준다면,
거리 분위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밝은 도심은 단순히 조명이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예방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이 활성화되면 상권이 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고성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성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기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극복하고 지역의 밤거리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고성의 밤거리가 다시 밝아지고,
그 안에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